

사·부·대·중

지리산의 눈물

지난 달, 달궁 제단에서 생명평화 민족 화해를 위한 지리산 위령제가 있었다. 그 날, 근대사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른 땅을 밟으며, 나는 비로소 이 땅과 역사와 핏줄을 가슴으로 생각하였다. 전쟁 때 돌아



노귀남 <형성대 교사·국문학>

무심히 흘러 왔던가. 지리산 위령제는 민족의 슬픔과 상처를 은밀으로 감당해야 했던 영혼들께, 이제 좌우 이념의 갈등을 뛰어넘고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향해 가

가신 꽃다운 청춘의 큰아버지 위패를 모시면서, 내가 역사에 대해 실제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았다.

올해 9월 9일이면 큰아버지 제사를 지낸다.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가셨나 보다고 그저 그런 생각에, 애절한 추모의 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막상, 위령제를 계기로 큰아버지 생각이 났지만, 합자도 몰라 고장집에 전화를 하고 한바탕 부산을 떨었다.

아, 그랬구나. 어디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최후를 맞았는지, 누가 그 시신을 거두어 피 묻은 주검을 씻기기도 했는지, 아니, 백골이 땅에 묻히기도 했는지... 조카인 나머지 추억하지 않았던 한 청춘이, 이데올로기 갈등의 희생양이고, 운명이고, 그제 역사가 되어서

토벌대로 서로 쫓고 쫓기면서, 그 서슬에 무고한 양민들도 이리저리 물의를 당하며, 산천은 피로 물들어 갔다. 그 한이 깊어, 우리 사회에는 아직 매듭짓지 못한 전쟁으로서 병

화형집도 이뤄지지 못한 마당에, 어찌 성급하게 화해와 상생이 되며 그 억울한 피가 씻기겠느냐며, 대립과 냉전의 목소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이 목소리가 그 영령들의 한을 풀어주는 말인지는 들이켜 볼 문제이다. 그동안 전쟁에 희생된 영령들의 풀지 못한 한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분단장벽은 마음의 벽이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위령제 내내 큰아버지 같은 영령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 분단장벽은 마음의 벽이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자운·성철의 죽음을 곡(哭)한다”

특별기고

수경 스님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 상임대표

법보총장 해인사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 청동좌불 건립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데 30여년간 봉암사 해인사 송광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해 온 수좌로서 최근 환경운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는 수경스님이 ‘해인사 대불’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인사가 어떤 곳인가?

민족의 역사속에서 해인사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현실적으로 해인사는 한국불교의 대표적 총림이다. 수많은 수행남자들을 배출시킨 수행자들의 그리운 고향이다. 민족적 자부

해인사에 세계 최대의 청동 석가모니 좌불 상을 모신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부처님 모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일은 만 중생이 갈망하고 또 갈망해 마지 않는 최대의 경사이다. <불본행진경>을 위시한 모든 경전에 보면 부처님 출현을 온 세상이 찬탄하며 기리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경전상의 표현을 몇 가지만 옮겨보자.

“삼라만상이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만 생명이 환희음악했다. 봉사가 눈뜨고 있는 댕이가

수 없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들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벌어지는 일의 내용으로 볼 때 큰 사자라고 믿어왔던 자운, 성철도 본래 경망하기 그지없는 토끼에 불과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속아왔을 뿐이라는 이야기이다. 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이런 이야기가 대중적으로 전개되었는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해인사에서 자운, 성철 스님의 유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자운, 성철 스님이 어떤 존재인가? 현대 한국불교에서 ‘계율’ 하면 떠올리게 되는 분이 자운 대율사이다. 돈오돈수의 깃발을 높이 들어 보조선사를 천마의와라고 질타한 분이 성철 대선사이다. 현대 한국불교의 고승이요, 우리 시대의 스승이다. 필자는 은사 스님이 따로 계시지만 마음깊이 두 분을 법의 스승으로 모시고 이 길을 걸어왔다. 그분들의 가르침과 행적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 출가 수행자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고 있다. 회고해보면 자운 큰스님께서 계율을 스승 삼는 길만이 한국불교와 오늘의 수행자가 살 길이라고 고구정당하게 타이르며 모범을 보이셨다. 성철 선사는 휴머니즘을 좇는 개와 같은 바보가 되지 말고 사람을 좇는 눈부른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두 분 스님은 우리의 가슴에 빛나는 등불로 자리잡고 있다.

그분들이 속물주의의 상징인 최대의 불상을 모시라는 유지(遺志)를 전하셨다니 너무나 당혹스럽다. 천조각 만조각

기운 누비와 검정고무신을 전제선으로 살아가셨던 성철 선사께서 불교의 세속화를 앞당기게 하는 물신주의적 유지를 남기셨다니 참으로 비참한 심정이다. 해인사의 주장대로 그런 유지를 남긴 것이 사실이라면 자운과 성철은 처음부터 나의 스승일 수 없다. 뭇 중생들에게 상처와 절망을 안겨주는 세속화의 유지를 남겼다면 자운, 성철이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는 말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오늘부터 우리 가슴 중심에 밝혀져 있던 자운, 성철이라는 이름의 등불을 내 뺏겨야 한다. 우리시대의 고승으로 모셨던 자운과 성철이라는 이름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야 한다. 세상의 비판과 원성에 이랑곳하지 않고 큰스님의 유지에 따른 불사리는 명분과 논리로 불사를 진행하는 자들도 휴머니즘을 좇는 어려서든 자들이라는 비난을 들어 마땅하다. 한국불교에서 해

- 해인사가 어떤 곳인가
몇몇 문중의 절 아닌
불교인의 마음의 고향
한국불교의 희망이다

결었다.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고 고통의 중생이 해탈의 부처되는 길이 열렸다.”

군이 경전 말씀을 빌릴 것도 없이 부처님 출현은 꿈에도 그리는 우리 시대, 만 중생들의 절절한 바람이다. 절망의 사회를 희망의 사회로 대전환하는 일이고, 불행의 인생을 행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일이다. 어찌 너울너울 춤을 추며 환희찬탄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세상에 있어선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어안이 병병하여 말이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해인성지에 ‘세계 최대’ 청동부처님이 출현한다는데 여기저기에서 불상 모시는 일의 부당함에 대한 비난과 원성이 자자하다. 환희찬탄은 커녕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요란하다. 절집 밖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 정지 또는 종교적 음모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며칠 전에 있었던 스님들의 대화 한 토막을 옮겨 보는 것이 좋겠다.

“사자는 토끼 새끼를 낳지 않는다.”

온갖 함하고 거친 내용들이 없지 않았지만 핵심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영암, 자운, 성철 스님이 사자라던 당연히 그 후학들은 새끼 사자일 것이다. 진정 사자가 낳았다면 그 새끼가 사자이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당연한 상식이 쪼러져 무너지고 있다. 사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토끼가 아니고선 생각도 할

해인성지에 최대불상

자운·성철 큰스님 유지라면

우리시대의 스승이란 말

천부당 만부당하다

대중의 불신과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불사는 이미 불사라고 할 수 없다. 유지를 운운 하며 스승을 읊되게 하고, 중생들에게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는 행위를 간과하는 것은 후학들의 도리가 아니다.

일찍이 우리들은 자운, 성철 큰스님으로부터 부처님 법대로 해야한다고 배웠다. 그분들로부터 중도는 중지를 받들고 따라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 가르침으로 볼 때 부처님 법대로 하지 않으면 불조가 이미 불조가 아니요, 스승은 이미 스승이 아님을 뜻한다. 중지를 받들고 따르지 않으면 중정도 이미 중정이 아니요, 방지도 이미 방지가 아니라는 말이다. 계율을 스승으로 삼고 살불살조의 정신을 따르라고 하신 자운, 성철 큰스님의 정신에 입각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 최고의 해인사를 만들고자 한다면, 불교 세속화의 상징물인 최고 최대의 등상불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세계 유일무이의 고려대장경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창조적인 기쁨으로 눈을 뜨리기 바란다.

둘째, 해인사를 세계 최고 수행도량으로 가

꾸고자 하는 중흥이라면 인위사회를 위기로 몰고 있는 물량제일주의를 부채질하는 최고 최대의 등상불 불사가 아니라 계율과 수행과 정법으로 세계 최고의 도량이 되도록 마음 쓸 일이다.

셋째, 진정 국운과 민족 화합과 국민 평화를 염원하는 불사를 하고자 한다면, 사부대중과 국민대중의 비난과 원망과 저항을 받지 않을은 물론 그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불사가 되도록 하는데 착안함이 옳다.

넷째, 강건이래의 수행가풍을 계승하고 중생들의 무명을 깨달음으로 회향하고자 하는 뜻이라면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부처님 유언에도 어긋나고, 외형으로 부처를 구하지 말고 한 종지정신에도 맞지 않고, 부처님 법대로를 강조하신 자운, 성철 큰스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등상불 불사가 아니라, 계율로써 스승을 삼고 살불살조의 수행가풍을 살리는 불사에 집중해야 진정 해인사답다고 할수 있다.

- 고려대장경 모신 성지
등상불 불사가 아니고
살불살조의 수행가풍
살리는 불사에 집중

한가지 확실한 것은 해인사는 그산중의 몇몇 문중과 현재 대중들만의 것이 아니고 종단 사부대중의 절이요, 국민의 도량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몇 해전 성철스님 사리탑 문제가 논란을 일으킬 때부터 해인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했었는데, 후시나가 역시나 하는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무기력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지금의 해인사 현재 대중들의 문제의식과 태도이다. 해인성지를 물량주의의 무대로 전락시키고 있는데도 해인사 재적 승려들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청정 수행도량 해인사를 세속화의 중심지로 타락시키고 있는데, 선방수좌들이 무겁게 침묵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산중이 무너지고 도량이 병들어 가고 있는데도 잘 치키고 잘 치료하고, 기우어 갈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그곳에 머물러 주신 노릇할 자격이 없다. 만일 현재 대중들과 재적 승려들이 지금과 같은 무책임과 죽은 침묵으로 무사 인일하게 처신한다면 중도와 국민들이 나서서 조직적이고도 강력하게 대응해 갈 것이다. 부질없는 상처를 남기고 혼란을 자초하는 소모적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빈다.

※이 글의 내용은 현대불교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탁소리

궁금한 청년불자 현황

김주일 (취재2부 기자)

조계종 포교원과 대한불교청년회 이하 대불청은 공동으로 3월말부터 한달간 전국 청년불교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불교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청년불교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교계의 관심이 쏠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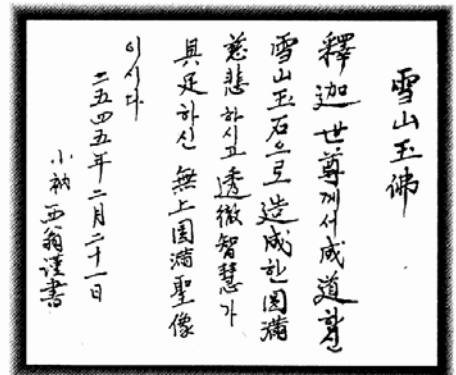
하지만 포교원과 대불청은 조사가 끝나고 2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조사가 정확히 안됐다는 것이다. 물론 6명의 조사요원이 전화를 통해 한 달간 전국 청년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사실 어렵다. 또 정확히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침체된 청년 불자들의 활동을 감안한다면 그리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포교원과 대불청이 이번 조사 결과의 공개를 계속 거부하는 또다른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타종교에 비해 저조한 청년불교의 속살을 드러내 보이기 싫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의 거부 이유에 대해 김규범 대불청 중앙회장은 “이번 실태 조사는 조계종 사찰에 예속된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정 조사된 것”이라며 “대불청 관할 전국 지회중에 빠진 곳이 많았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조사 결과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조하게 나왔다는 것이다. 대불청은 전국 각 지구 청년회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전격적으로 일임해 정확한 재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다시 재조사를 한다니 두고 볼 일이지만 혹 그 결과가 발표하기 부끄럽더라도 솔직하게 결과를 드러내 청년불교의 현주소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았으면 한다.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추천서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코리아 불타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 buddha.co.kr